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1. 1. 6.(수) 10: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1년도 제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전차 회의록과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과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 차기 회의에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는 대로 첫 번째 회의입니다. 첫 번째 회의인 만큼 의안도 제5기 비전 및 정책 과제에 관한 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 기간 검토를 해서 마련된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많이 내주셔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및 사업수행에

바탕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관한 건 (2021-01-001)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종원 혁신기획담당관

-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과 주요정책 과제를 <붙임>과 같이 정할 것을 의결한다. <2> 제안이유입니다.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3년간 추진할 비전과 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3> 주요 추진경과입니다. 2020년 8월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고 비전 수립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제5기 비전 관련 방송통신 유관 기관 대상 의견수렴 및 아이디어 국민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27일에는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주요내용입니다. <가> 비전과 12대 정책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은 “국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입니다. 3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목표는 신뢰받는 미디어입니다. 이를 위해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방송 재원구조 개편, 디지털 시대 재난방송 대응체계 고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위조작정보 및 성범죄물 대응 강화를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성장하는 방송통신입니다. 이를 위해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 방송 광고 규제 패러다임 전환, 공정경쟁 환경 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법제 마련을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이용자중심 디지털 포용사회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불편 원스톱 해결,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마지막으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및 역량 강화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3대 목표가 12개 정책과제 이외에도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책과제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 1>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과제 ①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융합시대 방송의 공적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평가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경우, 공적책무 강화를 위해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이행여부를 엄격히 점검하겠습니다. 교육·재난대응 등 공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청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KBS·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의 수요 증가에 따라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밀착 콘텐츠에 대한 지역방송사 간 공동제작, 신유형 콘텐츠 제작, 지역방송과 지자체 간 협력모델 발굴 등 지역방송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방송통신을 통해 남북 간 동질성 회복 및 통일 의식을 제고하고, 민·관의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통일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국제공동 연구 등을 통해 북한의 방송통신 이용실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과제 ② 방송 재원 구조 개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공적 가치를 유지하고 방송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송 재원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신료 산정과 사용내역의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영방송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를 개선하고, 미디어랩 판매영역을 인터넷·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을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지역방송·재난방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재원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기금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과제 ③ 디지털 시대 재난방송 대응체계 고도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통위의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존 방송채널 외에 OTT, 소셜 미디어 등으로 재난방송 제공 채널을 다각화하는 등 수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맞춤형 재난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과제 ④ 허위조작정보 및 성범죄물 대응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통해 팩트체크가 활성화되어 올바른 정보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상황 허위조작정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허위조작 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DB를 제공하는 등 불법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제도와 사이버 명예훼손제도를 개선하고, 디지털 역기능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표 2> 방송통신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과제 ⑤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방송통신 융합환경 변화에 맞추어 광고·편성규제 개편 등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품격·대형 기획 프로그램 제작 투자를 위한 방송 소유·경영 규제 완화, 지역·중소방송사의 상호경영 규제 완화 등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영방송 자율성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방송 편성에 관한 규제를 필요 최소한도로 축소하고, 시청점유율을 온라인·모바일 영역까지 확대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도입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UHD 시청이 가능하도록 직접수신 설비 보급과 유료방송 재전송 협의를 지원하겠습니다. 해외국가와의 공동제작 활성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등 방송콘텐츠와 OTT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과제 ⑥ 방송 광고 규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형식적인 기존 방송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중간·가상·간접광고, 협찬고지 등 방송매체 간 광고·협찬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미디어 환경과 기술 변화에 적합한 종합적인 광고 규제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과제 ⑦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 결합판매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관련 제도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자·유통망의 자율규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등을 통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방송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사후규제를 정비하고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홈쇼핑 연계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 개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제 ⑧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법제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까지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하여 미디어 융합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인 미디어 제도 개혁을 위해, 학계·시민단체·관계부처·국회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인 미디어 개혁기구 설립 시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3>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과제 ⑨ 국민불편 원스톱 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빈발민원에 대한 현장 검증을 강화하고, 분쟁조정 신청절차와 피해구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통신분쟁조정의 실효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방통통신 민원을 방통위·과기정통부·방심위 등 기관별로 이송·처리하는 현행 방식을 대표전화로 통일하여 전화상담 원스톱 민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사·연구, 시청자 불만처리와 피해구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를 개선하여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지원금 수준을 향상하는 등 단말기 이용자 편익을 확대하겠습니다. 선택제 모바일 앱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OTT와 같은 신규 서비스도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하는 등 이용자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제 ⑩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방송환경에 맞는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칭)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대상 맞춤형 TV 보급을 전체 시청각 장애인 대상으로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 전환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제 ⑪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개 광역시·도 단위의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완료하여 미디어 교육을 위한 허브 시설로 육성하겠습니다. 온라인 미디어교육 플랫폼을 통해 미디어교육 콘텐츠를 공유·개방하고, 마을공동체 대상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과제 ⑫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및 역량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이용자보호 법체계를 AI 기반 지능정보 서비스 자체의 책임소재, 권리구제 절차 등을 포괄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원칙’을 기반으로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앱마켓,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라이브커머스 등으로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치정보사업의 진입은 완화되어 이용자 권익보호는 강화하고, 안전한 본인확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붙임>으로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전체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상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전체적으로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을 망라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하나가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은 매우 어려운 과제들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방통위가 과연 3년 이내에 모두 이룰 수 있는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무처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하려면 역량이 분산되어서 어느 것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우선순위를 설정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안들을 보면 이해당사자가 상당히 많이 있겠다는 안들이 많습니다. 이해당사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상호 간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저희가 행정청으로서 그것의 충돌을 완화해서 상호 간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많다는 이야기는 방통위가 그들의 이야기를 정말 열심히 잘 들어서 구체적인 최종안에 반영되어야 우리 방통위안이 설득력을 갖게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국회 입법과정이 필요한 안들도 제법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와도 소통을 해야 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해당사자에게는 자기들의 매체를 가진 방송사와 신문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쪽과도 꾸준하게 소통을 하십시오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 목표 가운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또 통상의 문제와는 어떻게 충돌이 되는지 하는 것들은 우리 방통위의 공무원들의 오랜 경험도 필요하지만 학계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만큼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충실히 들어서 이 방안들이 3년 뒤에 제5기 방통위가 끝날 때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말씀드리기 전에 7페이지 방송통신 국민불편 원스톱 해결과 관련해서 방송통신 민원을 방통위·과기정통부·방심위 등 기관별로 이송·처리하는 현행 방식을 대표전화로 통일하여 전화상담 원스톱 민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민원실 등과 이야기해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절실한 것 같은데 언제쯤 준비가 가능합니까?

○ **김동철 기획조정관**

- 먼저 방통위·과기정통부·방심위 이런 관련기관들이 모여서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모두 통일할지까지 결정한 다음에 이것을 통일하면 민원전화 관련한 시스템을 3개 해당 기관들 다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산이 2~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산을 기재부에 올해 신청해서 국회에서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스템을 전환한 후에

원스톱 민원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호재 위원님이 우선순위를 맞춰서 해 달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이와 함께 속도를 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총 망라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동안 장기간 논의해 왔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들이 다 담겨져 있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서 이렇게 하나의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 하나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난제들도 있지만 방통위가 주체적으로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5기 방통위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방향성을 제시 하고, 또 앞으로 미래 청사진을 잘 그려냈다는 점에서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이것을 좀 더 우선순위와 함께 추진력 있게 잘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이것이 하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 간 협의도 그렇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들이 제4기 때 보니까 노력은 했지만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측면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겠지만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오랫동안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종합·정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는 무엇보다도 지상파방송, 종편·보도PP에 대한 재승인·재허가가 일단 완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에 대한 재승인 조건이 다시 부가가 되었고 보완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승인 심사 절차 완료가 재승인 완료가 아니다, 즉 공정성 확보에 사업자들이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매체별·사업자별 특성에 따라서 승인·허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다각적으로 펼쳐서 방통위 뿐만 아니라 전문가나 또 사업자들과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형태로 취합해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미디어 공공성 강화와 미디어 교육 광역 거점과 소규모 미디어센터 간 연계 강화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교육과 관련해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현행 10개에서 17개로 늘려야 하는데 현재 진행되는 계획도 있고 아직 계획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교육 허브와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시청자미디어센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는 단위 또는 시·군·구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방통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사업을 진행 했으면 합니다. 비대면으로 인해 많은 미디어 복지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되었지만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통해 미디어교육을 실행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미디어 사각지대, 미디어 복지가 활성화 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남북방송통신교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 중 남북방송 통신 교류 지원과

관련해서 북한의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가 얼마나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이 보다 효율적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팩트체크 활성화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기조 하에서 민간의 자율에 의한 팩트체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공적책무 강화와 관련해서 각각의 의원들이 많은 의견을 제출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속도 있게 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도 국회로부터 있었고,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된 내용이 보다 풍부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다 행복한 미디어를 꿈꾼다고 되어 있는 만큼 국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고 방송통신에서 효과적인 정보제공 그다음에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더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저희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신년 첫 위원회 회의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재난으로 언택트(Untact) 시대가 도래하면서 방송통신 환경에 큰 변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제5기 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를 새해 첫 회의에 논의하고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무처와 저희 위원들 사이에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쳤고 여기에 제시된 모든 정책과제가 중요합니다. 다만 그중 몇 가지만 강조하고자 합니다. 미디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콘텐츠가 늘어나고 일부 미디어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갈등과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위원회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높이면서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따뜻한 미디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디어 제작 소비 형태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서 과거의 낡은 규제 틀은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변화에 발맞춘 유연하고 신속한 법제도와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통신·인터넷 분야도 신규서비스에 대한 규제 공백과 새로운 유형의 피해자 피해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N번방 사건과 함께 디지털 사회의 부작용, 역기능 방지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비전(안)은 저희 제5기 방통위원회의 기본적인 의지의 표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사무처가 힘을 합쳐서 정책 실천에 최선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도 논의하겠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마지막으로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첫 번째 회의이고 이 자리에서 앞으로 제5기 남은 3년간 오늘 의결한 비전과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이런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추진할 과제, 비전 이런 것들을 관련 업계, 국민들과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과제 간 구체적인 내용도 있고 다소 추상적인 내용도 있지만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업무 계획으로 구체화되어서 실행의 속도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향후 관련 업계를 비롯해서 전문가들과 국민들 간의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활성화 방안 등 구체화되고 준비된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합리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이런 과제들은 좀 더 심도 있고 속도감 있는 논의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5기 위원회 내 성과를 내고 오늘 비전으로 제시한 '국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만드는 데 상임위원들과 사무처가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시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기 회의는 1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1년 제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30분 폐회 】